

기억과 증언, 그리고 새로운 저널리즘의 시도

박진우*

— 목 차 —

1. 서론 : 이것이 왜 저널리즘이 아닌가?
2. 역사와 기억, 그리고 증언
3. 증언과 저널리즘 : 사실성과 체험의 변증법
4. 증언 저널리즘의 장르 : 『전태일 평전』에서 세월호 증언까지
5. 새로운 과제들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기억과 증언의 문제를 고찰한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다양한 기억과 증언의 글쓰기가 저널리즘의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문학의 영역에서 '논픽션과 문학'에 대하여 최근 제기된 장르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매우 훌륭한 저널리즘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하지만 이는 역사와 기억, 기억과 증언 문학, 그리고 저널리즘과 기억이라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주제이다. 그래서 첫째 기억과 증언에 대한 연구에서 그동안 저널리즘이라는 차원이 간과되었던 이유를 이론사적 맥락에서 고찰한 다음, 둘째로 디지털 저널리즘의 시대에 저널리즘의 자기 혁신을 위해 필요한 보다 새로운 포맷의 글쓰기 실천에 대한 요구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시대적인 역사 인식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모바일 저널리즘 생태계의 등장 과정에서 기억과 증언 문학은 대단히 중요한 저널리즘 글쓰기의 영역으로 적극 해석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 광주의 저널리스트들이 취재하고 황석영이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같은 작품들이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로

* 건국대학교

재해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 집합적 기억과 저널리즘, 증언 문학, 『전태일 평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1. 서론 : 이것이 왜 저널리즘이 아니란 말인가?

이 글은 ‘논픽션과 르포의 부흥’이라는 천정환의 질문에 대한 (뒤늦은) 응답으로 시작한다. 그는 계간 『세계의 문학』에 발표된 평론 - 「세월, ‘노동’, 오늘의 ‘사실’과 정동을 다룰 때 : 논픽션과 르포의 부흥에 부쳐」¹⁾ - 에서 논픽션과 르포 같은 글쓰기가 문학의 장 내에서 ‘비소설’, 그러니까 ‘비문학’에 해당한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어서 그는 사실에 대한 천착과 이를 매개하는 형식의 탐구라는 차원에서 애당초 문학과 논픽션, 그리고 다큐는 깊은 교집합을 가진다고 말한다.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이는 사실 혹은 ‘리얼’이라는 것의 힘을 여전히 긍정하면서, 소설이라는 양식이 그 힘을 표현하는 유일한 혹은 지배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문학가’의 일이 ‘문학’ 안에만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관습이나 관념은 시와 소설 중심으로 최대한 좁게 구획된 ‘문학’ 장의 관습과 1980년대식 리얼리즘(론) 및 민중·민주 문학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확립된 개인주의·자유주의적 문학주의의 소치일 가능성이 높다”²⁾.

1) 천정환, 「세월, ‘노동’, 오늘의 ‘사실’과 정동을 다룰 때 : 논픽션과 르포의 부흥에 부쳐」, 『세계의 문학』, 제40권 1호, 통권 155호(2015년 봄), 184~200면.

2) 천정환, 앞의 글, 185면.

여기서 우리는 사실과 매개, 그리고 이를 재현하는 형식—그것은 문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의 위계에 대하여 간과해 왔던 오랜 관습을 새롭게 문제 삼게 된다. 그의 주장은 일차적으로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학 장이 지극히 협소한 형식적 틀 속에 구획되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 시대의 문학 장이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던 협소한 틀 속에서 풀어가기는 어려운 새로운 사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가? 저널리즘 역시 궁극적으로 ‘진실(truth)에 대한 추구’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으면서, 그에 다가서기 위해 수많은 사실(fact)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재현 절차이자 방법이 아니던가? 가장 교과서적인 논의로 요약해 본다면, 저널리즘이란 “공적으로 중요하거나 관심사가 되는 현재의 일들을 규칙적으로 생산하고 배포하는 사업 또는 행위”로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와 논평을 널리 퍼져 있는 익명의 수용자에게 정기적으로(보통 하루 단위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알리는 일련의 제도”를 지칭한다³⁾. 따라서 저널리즘은 보통 그것이 다루는 정보와 논평이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제시되는 일련의 글쓰기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참되고 진실한’ 글쓰기는 한편으로는 저자(저널리스트)의 양심에 달려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훈련받은 집단적인 규범과 규칙이다. 그가 확인하고 재현할 ‘사실’과 ‘진실’에 대해 누구도 명료한 정의를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저널리스트의 글쓰기를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당대의 합의된 규칙,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삼는 소위 ‘기능적 진실(functional truth)’의 개념에 대한 훈련이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다⁴⁾.

3) Michael Schudson, 『뉴스의 사회학』 2판, 이강형 옮김,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15면.

4) Bill Kovach & Tom Rosenstiel,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3판, 이재경 옮김,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62면.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시 천정환의 질문으로 되돌아갈 경우, 예기치 않은 흥미로운 주제와 마주치게 된다. 그는 기존의 문학 장의 규칙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새로운 형식으로 사회적 사건과 사실들을 매개하고자 천착하는 무수한 논픽션·르포 작품들에 대하여 왜 그것이 문학이 아니냐고 질문한다. 그렇다면 혹시 정 반대의 질문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즉 그러한 글쓰기의 장르는 왜 저널리즘은 아니겠는가? 지금껏 누구도 문학과 역사와 저널리즘, 그리고 기억과 증언이 서로 동일하다고 말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질문의 순간은 그 모든 요소들이 서로 겹쳐지는 매우 독특한 순간이지 않은가? 기억과 증언, 그리고 저널리즘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를 위해서 지금 먼저 살펴볼 대목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 혹은 기억의 ‘형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학과 저널리즘은 각자의 장을 지배해 온 오랜 규칙—한 편으로는 소설 중심적인 재현 양식의 지배, 다른 한 편으로는 ‘기능적 진실’을 추구하는 규칙으로서 오랫동안 군림하였던 ‘객관성(objectivity)’, ‘공정성(fairness)’과 ‘균형성(balance)’이라는 추상적인 규칙—으로부터의 탈피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모바일·스마트’ 미디어로 대변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보다 확장된 형태로 수행하고자 하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기억과 증언, 그리고 이를 재현하는 보다 문학적인 양식이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2. 역사와 기억, 그리고 증언

1) 역사와 기억 : 논의의 간략한 경과

‘기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 시대에는 이 용어를 것처럼 열렬히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가? 학술적인 엄밀성이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 용어만큼 무언가 모호하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것도 드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억이라는 용어만큼 과거와 역사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상호작용의 양상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도 흔치 않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⁵⁾. 역사학자 엔조 트라베르소(Enzo Traverso)는 역사 혹은 역사학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의 전문적인 제도가 되고 그 과정에 대중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가는 것에 비례하여, 역사와 현재의 상호작용의 실제적인 양상을 포괄하는 무언가 새로운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⁶⁾. 그러니까 기억 개념은 바로 그 과정에서 등장한 보다 ‘친숙’하고 대중적인 용어일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만 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개념의 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19세기적인 실증 역사학의 전개, ‘근대’라는 시대를 둘러싼 철학적 접근, 내셔널리즘의 시대와 국가적·기념비적 역사관의 등장을 이해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기억과 회상의 메커니즘에 대한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과 프로이트의 철학과 정신분석학, 뒤르케임(Emile Durkheim)과 모리스 할박스(Maurice Halbwachs)가 주도한 새로운 학문이었던 사회학, 그리고 이를 프랑스의 민족주의 역사 전통과 결부시켰던 피에르 노라(Pierre Nora) — 그가 주도한 『기억의 터(lieux de mémoire)』라는 집단 저술은 이제 ‘기억’이라는 연구 주제와 대상 자체와 분리되기 어렵다—와 독일식의 문화적·공적 기억의 철학적 담론을 주도하였던 알레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등의 오랜 복잡한 논의를 이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⁷⁾.

5) François Hartog, *Régimes d'historicité : Présentisme et expériences du temps*. Paris : Seuil, 2002.

6) Enzo Traverso, *Le passé, modes d'emploi : Histoire, mémoire, politique*. Paris : La Fabrique, 2005.

7) Jeffrey Olick, "Collective Memory : The Two Culture". *Sociological Theory*, 17(3),

기억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의는 또한 20세기라는 ‘극단의 시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근대성의 테크놀로지가 창출한 전체주의와 총력전, 보다 효율적인 ‘포함과 배제’의 인종주의적 수용소와 학살의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⁸⁾. 그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 이를 겪은 모든 사회의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분석적 체험이 필요하였다.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간직하던 악과 잔혹함의 체험을 마침내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나선 선구자들을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였다⁹⁾. 우리 시대의 역사와 기억의 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의 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작업은 또한 그 자체로 매우 고통스러운 체험이기도 하였다.

우리 시대의 ‘기억’이란 또한 ‘살아남은 자의 증언’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¹⁰⁾. 전후 유럽 사회의 경우,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하였던 수용소 증언 1세대—여기에는 작가 프리모 레비(Primo Levi), 엘리 비셀(Elie Wiesel), 그리고 테렌스 데 프레(Terrence Des Pres) 등이 포함된다—가 등장하면서, ‘레지스탕스’라는 신화의 시대 혹은 ‘저항하지 못한 유대인’이 가졌던 자괴감과 열등의식으로 점철된 애도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고통과 희생, 트라우마를 증언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레비는 수용소 경험의 참상을 기록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수용소에 들어

1999, pp.333~348; 『기억의 지도: 집단기억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뒤바꿔놓았나?』, 강경이 옮김, 서울: 옥당.

8) Martin Jay, “Of Plots, Witnesses and Judgements”. in S. Friedlander, (ed.). *Probing the Limits of Representation: Nazism and the Final Solu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p.97~107; O. Meyers, E. Zandberg, & M. Neiger, “Prime Time Commemoration: An Analysis of Television Broadcasts on Israeli’s Memorial Day for the Holocaust and the Heroism”. *Journal of Communication*, 59, 2009, pp.456~80.

9) Jean-François Lyotard, *Le différend*. Paris: Minuit, 1983.

10) Primo Levi,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가 인생 최후에 남긴 유서』, 이소영 옮김, 서울: 돌베개, 2014.

간 모든 사람들이 첫날부터 준비하였던 것이며, 그 경험을 외부에 증언하는 것만이 오로지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한다¹¹⁾. 그것은 희생자들의 증언을 통해 숨겨지고 억압된 기억을 복원시킨 중요한 계기였다. 하지만 이들의 증언은 단지 기존의 역사학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공백지대를 메꾸어 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되는 기억, 인류의 미래에 절대적인 흔적을 남겨야만 하는 중요한 시대적 증언으로서의 기억이라는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차원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제 수많은 기억들은 그 자체로 '기억의 의무'의 대상이 되었다. 히브리어 '자코르(Zakhor; 기억하라)'라는 정언명령, 즉 희생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부과된 '기억의 의무'이자, 이 시대의 기억의 존재 양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심성이었다¹²⁾. 그것은 의무를 위배하는 자에 대한 윤리적인, 나아가 법적인 단죄를 동반하게 된다.

2) 기억과 증언 : 우리 시대 '기억'의 새로운 존재 방식

하지만 이 글에서 기억과 증언, 기억의 의무와 법적·윤리적 처벌에 이르는 쟁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말도록 하자. 대신 기억과 증언이라는 핵심 용어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론 '증언'이라는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다. 증언은 하나의 언술 형식이자 행위의 형식이다. 그리고 이는 미디어를 통한 매개를 거칠 경우 기억의 형태, 기억의 조직 방식, 기억의 구체적 의미, 그리고 기억의 수용과 전송 방식 자체를 체계적으로 변동시키는 중요한 변인에 해당한다¹³⁾. 이 점

11) Primo Levi,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옮김, 서울 : 돌베개, 2007.

12) K. Teneboim-Weinblatt, "Bridging Collective Memories and Public Agendas : Toward a Theory of Mediated Prospective Memory". *Communication Theory*, 23(2), 2013, pp.91~111.

13) 박진우, 「증언과 미디어 : 집합적 기억의 언술 형식에 대한 고찰」, 『언론과 사회』 18권

에 대한 이해는 증언이라는 용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법률적이고 역사적인 사유의 맥락을 검토해 보면 보다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증언이란 용어는 오늘날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체험적이고 연대기적인 글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증언이란 말 자체만으로는 ‘역사’나 ‘기억’을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메타포—혹은 일종의 ‘우산 개념(umbrella term)’—로 기능할 수 있다¹⁴). 하지만 증언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법률적인 맥락을 자신의 기원으로 삼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증언이란 보통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일, 혹은 그런 말을 지칭한다. 즉 어떤 사람이 증언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는 일, 혹은 그 진술 자체가 바로 증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증언이란 법률적인 의미에서, 특정한 법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정한 진리 주장을 담고 있는 언명 혹은 언명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이 문제를 어원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는 에밀 벤베니스트(Emile Benveniste)의 기념비적 연구인 『인도·유럽사회의 제도·문화 어휘 연구』를 참조하면서, ‘증언(testimony; témoignage)’이란 ‘제3자(testis)’, 즉 법정 재판처럼 서로 대립하는 의견들이 진술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관찰자(목격자)가 양측 사이에서 제3자로서 행하는 발언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¹⁵). 동시에 그는 증언이라는 용어에는 ‘superstes’라는 이중적 의미도 함께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어떤 사건을 끝까지 겪어내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흔히 ‘살아남은 자들(superstite)’이라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을 말한다.

그러므로 증언이란 근본적으로 주어진 특정한 상황에서의 말하기의 한 형태인 셈이다. 증언이란 결국 사건을 전유하고 이해하는 수동적 태도와

1호, 2010, 49면.

14) A. Ertl, “Travelling Memory”. *Parallax*, 17(4), 2011, 4면.

15) Giorgio Agamben,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 문서고와 증언』, 정문영 옮김, 서울 : 새물결, 2012, 22면.

사건을 해석하는 능동적 태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증언은 자신의 출발점인 법정 싸움에서의 진실성 확보의 노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가지는 사건에 대한 지각과 태도의 측면, 그 체험의 불확실성과 모순에 대한 인식과 이해라는 대립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괄한다¹⁶⁾. 그것은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 혹은 외부적 사실들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자신이 행위자 혹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서 그것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는 보다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피터스(John D. Peters)의 언급처럼 증언에는 사건을 ‘바라보기로서의 증언’과 ‘말하기로서의 증언’, 혹은 ‘목격으로서의 증언(testimony-eyewitness)’과 ‘고백으로서의 증언(testimony-confession)’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되어 있다¹⁷⁾. 이로부터 우리는 증언이라는 것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집합적 기억’의 사회적·문화적·상호작용적 특성의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통해 본다면 기억과 증언, 나아가 저널리즘이라는 주제까지 포괄하는 논의들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 혹은 일본군 위안부 만행의 피해 할머니들이나 광주 항쟁 참여자들의 작지만 지속적인 목소리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증언을 손쉽게 개인적 체험의 장, 이를 통한 숨겨지고 억압된 역사—소위 ‘서발턴의 귀환’¹⁸⁾—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역사의 새로운 기술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사 기술이기에, 그것은 모든 이야기의 장르—소설과 르포, 그리고 저널리즘은 여기에 필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문제와 직

16) Renaud Dulong, *Le témoin oculaire : Les conditions sociales de l'attestation personnelle*. Paris : Éd. de l'EHESS, 1998.

17) John Durham Peters, "Witnessing". *Media, Culture & Society*, 23(6), 2001, pp.707~723.

18) 김원, 「서발턴(Subaltern)의 재림 : 2000년대 르포에 나타난 99%의 현실」, 『실천문학』, 2012년 봄호, 192~206면.

결되고 있다. 증언이란 그 자체로 목격과 체험의 법정 증언이자 개인적 체험담이다. 그것은 애당초 기존의 문학 장의 문법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건의 의미를 포착하는 문학적 재현의 양식으로 한정되지 않는 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전달의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무한한 체험과 표현의 가능성을 함께 내포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 영역은 다른 무엇보다도 문학과 저널리즘이 기존의 관념을 벗어던지고 각자 스스로의 외부로 향하게 되는 연결의 지점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문학 그리고 저널리즘의 장의 주체들로서는 성큼 발을 내딛고 쉽사리 들어서지 못하는 관문과 같은 곳이기도 하다. 때로는 그것이 기존의 관습으로는 문학이 아닌 어떤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기존의 저널리즘 장의 규칙에 위배되는 글쓰기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장의 제도적 규칙과 관습을 넘어서거나 위배된다 한들 어떻겠는가?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존의 제도적 압력이 어찌면 무화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문을 지나서 어떤 글쓰기, 어떤 사회적 실천과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시작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이 영역에서 기억과 증언의 개념을 또 다른 방식으로 관통하는 오랜 글쓰기의 양식과 만나게 될 것이다.

3. 증언과 저널리즘 : 사실성과 체험의 변증법

이러한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기억과 증언의 문제를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장의 역사와 관습 속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널리즘은 오랫동안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저널리즘이 기억 특히 사회적·집합적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¹⁹⁾. 사실의 수집과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근거를 요구하는 엄격한 역사학적 방법론과 절차가 확립되었던 서양

의 19세기 실증주의 역사학 이래, 저널리즘은 비록 그 자체로 역사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역사의 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았다²⁰⁾. 그리고 역사학의 엄격한 절차가 소화하지 못하는 대중들의 다양한 주관적 체험의 기억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확산시키는 매개자, 나아가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사실이나 감정들을 처음으로 ‘증언’의 형식으로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²¹⁾. 이제 새로운 형태로 기억과 증언, 그리고 저널리즘의 관계가 문제시되는 시대에 걸맞게 이러한 요소들의 구성 방식과 작동 방식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까? 이는 문학과 저널리즘, 기억과 증언의 영역이 모두 기존의 논의 방식과 규칙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새로운 형식으로 사회적 사건과 사실들을 매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사명을 부여받는 저널리즘이 수행해야 할 역사와 기억, 그리고 증언의 역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저널리즘의 장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저널리즘은 기억과 증언의 연구 영역에서 여전히 매우 경시되고 있다. 이러한 간과에 내재된 구조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일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 구조적 요소들은 많은 경우 저널리즘이라는 글쓰기의 장 혹은 제도가 안고 있는 특수한 차원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듯 미디어와 저널리즘의 작동과 결합하면서 기억의 과정은 매우 이중적인 것으로 변모한다. 한 편으로 그 과정은 현재의 사건이나 사회적 신

19) C. Kitch, “Placing Journalism inside Memory—And Memory Studies”. *Memory Studies*, 1(3), 2008, pp.311~320.

20) Hayden White,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 메타역사』, 천형균 옮김,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1; Barbie Zelizer, “Memory as Foreground, Journalism as Background”. in B. Zelizer & K. Tenenboim-Weinblatt. (eds.). *Journalism and Memory*. New York : Palgrave, 2014, pp.32~49.

21) 박진우, “집합적 기억 연구 : 주제와 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편),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서울 : 컬처북, 2015, 417~451면.

념들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이끌게 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과거로부터 학습된 일종의 신념 체계가 현재의 사건을 이해하는 틀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우리는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²²⁾.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기억이란 바로 이 같은 이중적인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형되어 나가는 일종의 ‘타협(negotiation)’의 산물이다. 바비 켈리저(Barbie Zelizer)는 저널리즘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그는 ‘핫한 순간(hot moment)’이라는 레비 스트로스(C. Lévi-Strauss)의 구조인류학 용어를 차용해서 이를 표현한다—에 대한 보도 활동이라고 정의한다²³⁾. 여기서 ‘핫한 순간’은 사건이 반드시 그 자체로 정말 중요한 것이거나 혹은 비일상적(unusual)인 것으로만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이에 대한 의미 형성의 과정, 즉 사건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해석과 보도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에 1차적으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행하는 체험이 진행되는 순간을 지칭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저널리즘이 기억의 사회적 형성 과정, 즉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의 행위자(agent)이자 결과물이라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는 단지 저널리즘이 사건을 그저 전달하는 차원과는 다른 문제이다. 기억과 증언, 그리고 저널리즘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은 무엇보다 ‘스토리텔러’라는 행위자(agent)로서의 저널리즘/저널리스트의 역할이라는 구조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저널리즘/저널리스트가 특정한 사건의 기억과 체험, 그리고 증인과 증언들을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야기의 형식을 주도해 나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역사서술 이론에서 이미 거론된 것처럼, 스토리텔링의 맥락과 규칙은 증언과 저널리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구조적 쟁점이다.

22) Barbie Zelizer, “Reading the past against the grain : the shape of memory stud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2(2), 1995, p.221.

23) Barbie Zelizer, *Covering the Body : The Kennedy Assassination, the Media, and the Shaping of Collective Memo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224.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대중들이 기억하는 방식에 관한 셔드슨(Michael Schudson)의 연구는 저널리즘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중적 기억의 재조직화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²⁴). 또한 슈워츠(Barry Schwartz)는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한 미국 언론이 남북전쟁에 임하는 링컨 대통령의 수사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링컨에 대한 미국 대중들의 기억을 현재의 정치적 장에 접합시키는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Schwartz, 1996). 젤리저(Zelizer)는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에 대하여 미국 언론이 과거 링컨 대통령의 장례식을 환기시키는 상징적 기호들을 동원하는 다양한 저널리즘 관행과 테크닉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를 통해 케네디에 대한 미국인들의 집합적 기억의 재조직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추적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²⁵).

더불어 이 문제는 또한 ‘증언(자)’의 위계에 대하여 벌어진 오랜 논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저널리즘은 분명히 ‘문자화된 증언’보다는 ‘구두 증언’을 훨씬 선호해 왔다. 그것은 저널리즘이 지식인 저자/증언자들이 주도한 문자화된 증언보다는, 사건 그 자체와 사건의 체험에 대한 전달에 보다 주목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⁶). 마틴 제이(Martin Jay)는 이와 관련하여 생존자들의 1차적 증언은 그들 스스로가 경험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소위 ‘근본적인 이해불가능성(fundamental unintelligibility)’—에서 기인하는 균열과 비일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역사학자들의 2차적 내러티브는 결국 이 모든 모순과 균열을 매워 나가는 합리화(make sense) 과정의 산물임을 주장한 바 있다²⁷). 그런 면에서 저널리즘의 증언은 ‘생존자들의 증언의 내러티브’와 ‘역사학자들의 학술 내러티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자, 전자에 보다 주목하면서 양자의 긴장을 어떤

24) Michael Schudson, 앞의 책.

25) Barbie Zelizer, 앞의 책, 1992.

26) Jean-François Lyotard, 앞의 책, 55~57면.

27) Martin Jay, 앞의 글, 104면.

형태로든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에 가깝다²⁸⁾.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저널리즘의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저널리즘은 크게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적어도 193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뉴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립되어 왔던 ‘주관을 배제한 사실적 균형 보도’ 우선의 원칙, 소위 ‘객관주의(objective)’ 저널리즘의 시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다. 진실에 접근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저널리즘의 기본이자 출발점이지만, 지난 70년 동안의 저널리즘은 우리가 왜 사실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실 확인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방식의 세계에 대한 이해—달리 말해 ‘진리에의 추구’—를 지향한다는 목표 자체보다는, 오히려 확인 가능한 사실들의 조합으로서의 보도라는 실천 규범을 원칙과 혼동한다는 것이다²⁹⁾.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위기는 보다 가속화되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 최근의 ‘손석희 현상’이 보여준 것은 결국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시민들이 원하는 뉴스는 더 이상 엄격한 형식논리에 사로잡힌 기계적인 중립적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진실의 추구라는 본래의 목표를 향해,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는 다양한 형식과 포맷, 그리고 이를 위한 (저자/기자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부각시키는 뉴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르러 저널리즘의 본령을 사고하면서, 단순한 기계적인 균형과 형평성의 논리를 넘어서, 보다 직접적으로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으면서도 ‘팩트 체크’의 기본을 저버리지 않는 새로운 보도의 양식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폭로 저널리즘과 르포 문학의 오랜 전통이

28) E. Zandberg, “The right to tell the (right) story : journalism, authority and memory”. *Media, Culture & Society*, 32(1), 2010, pp.5~24.

29) Michael Schudson, 앞의 책, 2014.

1960년대 ‘뉴 저널리즘(new journalism)’의 견인차가 되었던 것처럼, 디지털·모바일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학적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글쓰기의 도입 및 이를 통한 새로운 보도의 양식과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이제 ‘롱폼 저널리즘(long-form journalism)’으로 통칭되는 ‘뉴뉴 저널리즘(new new journalism)’을 향한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디지털 저널리즘의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그럴 경우 저널리즘은 결국 지나간 과거를 비록 정리되지 않은 형태일지라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존하며 후대에 계승하는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제도이자,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1차적인 내러티브(혹은 ‘프레임’) 형성의 담당자이며, 그것을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규정짓는 제도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글쓰기를 디지털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맞게 전개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부여받는 셈이다. 그것이 다룬 내용은 결코 과거의 기준에 맞는 사실과 진실의 개념이 아니다. 사건에 대한 체험, 피해자의 울분과 절규, 그리고 이를 사회의 새로운 기억의 패러다임으로 재구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의제의 형성자로서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 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로의 진입은 이제 새롭게 형성될 진실의 영역들—사실성의 영역에 덧붙여진 생생한 주관적 체험의 영역—을 적극 포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고무해 나가고 있다.

4. 증언 저널리즘의 장르

：『전대일 평전』에서 세월호 증언까지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들을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확인해 주는 사례들은 최근 무수히 많다. 사실 기억과 증언,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제기되는

증언·르포 문학—혹은 이 연구의 기준대로라면 ‘증언 저널리즘’—의 이슈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최근 수 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겪었던 미증유의 체험들에서 기인한 바 크다 하겠다.

한국 현대사의 여러 주요 국면들마다 한국 언론, 저널리즘은 대체로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해 왔었다. 하지만 원래 저널리즘에 내재되어 있던 증언의 기능, 증언의 내러티브 구성의 방식은 문학의 힘으로, 문학 혹은 역사(서발턴의 구술사 등)의 형식으로 우리 사회에 분출되어 왔었다. 예컨대 1970~80년대의 각종 노동자 수기들—여기에는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1984),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1984) 등이 포함될 것이다—은 ‘르포’라는 저널리즘 형식을 취한 ‘현장의 글쓰기’이자, 그것 자체로 훌륭한 문학적 성취가 아니었을까? 1980년대의 광주항쟁에 대한 ‘증언’들—전남사회운동협의회가 편집하고 작가 황석영이 기록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은 그것 자체로 문학과 저널리즘 영역 모두에 걸친 주요한 성취이다. 故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기념관건립위원회’라는 명의로 1983년에 출간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1991년에 본래 저자의 이름으로 『전태일 평전』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역시 이러한 양자의 특성을 본래적인 형식으로 결합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조영래는 전태일의 일기와 자료를 중심에 놓고 이를 재배열한 뒤, 빠진 부분은 취재를 통해 보충하면서 한 개인의 삶을 완성해 낼 뿐 아니라, 이 역사를 공적인 역사로 기입하기 위해 당시의 시대상황과 결부시켜 논의한다. 『전태일 평전』은 기본적으로 보충적인 형식으로 쓰여졌다. 자료와 자료를 잇대어서 결락을 채우고 감정을 넣고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자 생애로 재구성했다”³⁰⁾.

30) 박숙자, 「기억과 재현으로서의 애도 : 『전태일 평전』, 『국제어문』 제67집, 2015, 61~62면.

1970년 11월 13일에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을 놓고, 그 주인공의 생애를 추후에 복원해 나가는 작업인 『전태일 평전』이라는 작품 자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문학 혹은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를 온전히 문학의 영역에, 혹은 온전히 취재와 저널리즘의 영역에 놓고 이야기한다면 정작 이 작업이 가지는 새로운 의미를 간과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박숙자는 자신의 연구에서 전태일 자신이 남긴 여러 일기나 수기, 소설, 편지 등과 같은 다양한 텍스트들이 가지는 표현적 층위에 우선 주목한다. 그러면서 전태일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언’하지 못하였던 바로 그 대목에 개입하는 새로운 저자, 그럼으로써 전태일의 증언 자체를 보다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는 데 성공한 또 다른 저자인 조영래의 역할을 강조한다³¹⁾.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것이 왜 문학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왜 저널리즘이 아닌가?

더불어 이 문제에 관련된 최근의 다수 문헌들은 표면적이건 잠재적이건 2014년에 벌어진 ‘세월호’라는 집합적이고 외상적인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마치 아우슈비츠 대학살을 겪은 전후의 유럽 사회처럼, 그리고 9·11 테러라는 경험을 한 미국 사회처럼, 문득 우리가 새로운 역사적 패러다임 속으로 내던져졌음을 깨닫게 만드는 특정한 경험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 그렇기에 이는 ‘사고’가 아닌 ‘사건’이고, 또 팽목항이 바로 우리 사회의 ‘그라운드 제로’라는 표현이 결코 어색하거나 과장된 것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³²⁾(4·16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2015; 김애란 외, 2014; 김종엽 외, 2016;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2016). 수많은 시민들, 문인들—작가들과 비평가들—이 문학적 양식의 충족 이전에 유족들의 ‘날 것’의 감정과 절규를 문자화하고자 하였고, 또 그 체험을 보다 ‘문학적’인 언어

31) 박숙자, 앞의 글, 2015, 64면.

32) 4·16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파주 : 창비, 2015; 김애란 (외) (공저), 『눈먼 자들의 국가』, 파주 : 문학동네, 2014; 김종엽 외(공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서울 : 그린비, 2016.

로 형상화하려는 시도가 결코 쉽지 않음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체험의 밀도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작가와 평가자들이 모여서 간행한 『눈먼 자들의 국가』(2014)는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세월호 관련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 혹은 ‘4·16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이라는 사회적 연대 기구의 이름으로 기록된 유가족 인터뷰인 『금요일에 돌아오렴』(2015) 등의 작품들이 대중들 앞에 선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문제적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증언’의 도구로서의 문학의 기능이 극적으로 두드러진다. 그것은 희생자들의 체험을 기억과 증언의 형태로 발굴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서 작동한 증언 도구로서의 문학은 오랜 문학 장의 관습에 비추어 다소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저널리즘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보여준 심각한 고장과 이탈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³³⁾. 동시에 주류 미디어가 주도하는 기억의 매개 과정에서 특정 기억이 대중들에게 일정한 틀 속에서 변형되고, 그 과정에서 공식화되고 지배적인 기억과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 소위 ‘기억의 사회적 정립(establishment) 및 위계화(hierarchisation)’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중들의 적극적인 거부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중들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주류 미디어와 저널리즘에 의해 자행된 기억의 위계—무엇이 더 ‘중요한’ 기억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기억인지, 또 그것은 어떤 의미 형태와 구조로 기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에 이미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자들을 대신하여 한국의 문인들과 작가, 그리고 시인들이 ‘그 어려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미 문학을 그 자체로 중요한 증언의 형식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것은 사실 오랫동안 증언 문학에 대하여 지배적인 담론으로 작용해 왔던 소위 ‘증언의 불가능성’이라는 이론적 명제를 그 자체로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글쓰기의 실천 형태였다. 그것은 소위 ‘증언자

33) 방송기자연합회,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 서울 : 방송기자연합회, 2014.

의 위계'라는 오랜 쟁점에 대하여 증언이 가지는 효력의 진실성 문제와 증언 주체의 지위를 둘러싸고 증언자와 저널리즘이 펼쳤던 매우 중요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 과정을 요약하는 것이다³⁴⁾.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두고 작가와 시민들은 모두 '증언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증언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김형중은 이를 “사건은 문학을 무능력과 직면하게 하고, 재현 불가능한 것을 국가나 법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로 재현하라고 요청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³⁵⁾. 그는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천정환의 논의를 이어 가면서 증언과 문학 사이에 새로운 가교를 놓고자 한다.

“시와 소설이라는 장르가 일종의 문학적 ‘기억술’이라면, 르포와 논픽션은 문학적 ‘기록술’이다. 논픽션에서 정보 상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소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반대로 소설이 지나치게 정보만 나열할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논픽션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전자가 언어의 형식으로 애도의 종결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후자는 사실의 압도적인 힘에 의지해 사건을 기록한다. ‘르포·논픽션’과 ‘시·소설’이 같은 문학 장 내에서 층위를 달리하는 하위 장르들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다”³⁶⁾.

우리에게 익숙한 문학 장르의 논의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오늘날의 문학장 내부의 규칙에 의해 부과되어 왔던 오랜 장르 내적인 위계의 문제가 문제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작가들이나 시민들이 비록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자의 위치를 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따라서 ‘증언의 불가능성’의 명제 그 자체를 위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의 (2차적) 체험의 기록으로서의 증언의 영역에서 이미

34) Giorgio Agamben, 앞의 책.

35) 김형중, “문학과 증언 : 세월호 이후의 한국문학”, 『감성연구』 제12집, 2016, 47면.

36) 김형중, 위의 글, 54면.

참여자이자 행위자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매우 폭발적인 형태로, 직접적인 감정과 정동의 표출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러한 폭발적인 양상 앞에서 시와 비극이 ‘이야기’-소설, 르포, 그리고 저널리즘의 영역은 아마도 모두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보다 장르적으로 우월하다는 논의 자체는 이미 그 힘을 잃기 시작한 셈이다.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폭발적인 감정적 관여는 결국 문학과 저널리즘이 이미 서로 겹쳐지는 영역, 따라서 어쩌면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구분을 무화시켜 나가야 할 영역으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방식, 새로운 변증법의 형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5. 새로운 과제들

이처럼 이 연구가 의도한 것은 결국 『전태일 평전』이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 오늘날 쏟아져 나오는 세월호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에 이르는 이 텍스트들이 왜 한국의 또 다른 훌륭한 저널리즘의 자원이자 전통이 아닐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이들 텍스트들을 일차적으로 규정해 왔던 문학 장, 그리고 저널리즘 장의 오랜 규칙과 관습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다. 그 도전은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문학 장 내부의 논의를 통해, 그리고 저널리즘의 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디지털 패러다임의 충격을 통해 다시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는 ‘이것이 왜 문학이 아닌가’라고 질문함으로써 ‘그렇다면 그것은 왜 저널리즘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제기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많은 난점들이 있다. 지금껏 논의했던 과제들은 모두 문학과 저널리즘, 그리고 기억과 증언에 내재되어 있는 ‘숨어 있는 전통’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문학이건 저널리즘이건 모두의 기존 관습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발터 벤야민이 말한 ‘좌파적 우울(mélancolie de gauche)’의 정서, 자신들의 원래 숨겨진 전통을 들추어내려는 자가 겪게 될 고초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³⁷⁾. 이는 각자의 영역 모두에서 그러할 것이다. 저널리즘 연구자의 입장에서 걸리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증언과 집합적 연구 영역을 포괄하는 사례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저널리즘은—특히 서구의 탐사보도·내러티브 저널리즘의 전통 하에서—그 자신이 새로운 억압된 기억의 발굴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널리즘이라는 제도 속에서 증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탐사보도’와 ‘롱 폼 저널리즘(long-form journalism)’의 전통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다수의 영역들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오랜 기계적 균형의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다. 저널리즘 스스로가 그러한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입하도록 만드는 일은 적어도 한국 언론의 현실에서 매우 지난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저널리즘이 대중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공공의 기억(public memory)’을 창출하는 일차적인 증언의 제도임은 결정적인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진실에 대한 요구’,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는 지점 역시 저널리즘의 장일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의 결과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팩트 체크’와 의미 부여의 방식 그 하나하나가 이미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사실성’의 문제와 증언 문학에 요구되는 ‘진실성’의 문제, 양자의 고유함과 차별성 등과 같은 한층 복잡한 과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저널리즘은 자신의 고유한 기능 그리고 앞으로 결코 문학과 구분되지 않을 고

37) Enzo Traverso. *Mélancolie de gauche : La force d'une tradition cachée, XIXe~XXIe siècle*. Paris : La Découverte, 2017.

유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한국 사회는 기억과 증언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는 고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다. 정근식의 표현처럼 이른바 ‘3중적 이행’, 그러니까 ‘탈권위주의, 탈냉전, 탈식민의 맥락’이 함께 작동하였던 것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었다³⁸⁾. 시민사회가 우선적으로 공식적 기억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자료와 증언 수집 활동에 나서면서 대항적인 기억이 형성되어 나갔다. 그리고 중국에는 국가가 이를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을 거쳐 나갔다. 광주 항쟁과 4·3 항쟁의 기억이 거쳐 갔던 발자취를 이제 세월호 사건이 뒤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적·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회세력에 의해 ‘반-기억 혁명’의 차원에서 국가주의적 기억을 지키겠다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보수 정권 9년 동안 그것을 제도화시키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국가 차원의 문화 형태로서의 기억으로부터 점차 ‘트랜스 문화’적인 기억으로 변모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이는 독일의 사회학자 아스트리드 에를(Astrid Erll)의 표현처럼 소위 ‘유랑하는 기억(travelling memory)’이 일상화되는 것이다³⁹⁾.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따른 기억의 포화(saturation) 현상이 정보의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현상과 함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기억과 증언, 문학과 저널리즘을 둘러싼 환경은 이제 결코 과거와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럴 경우 새롭게 제기될 과제는 결국 기억과 증언, 문학과 저널리즘 사이의 경계와 협력의 변증법이며, 그 속에서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새로운 글쓰기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지 않을까? 그것이

38) 정근식,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2013, 387면.

39) A. Erll, 위의 글, 7면.

바로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던 몇 가지 사례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그러한 글쓰기의 다양한 형식과 실험들을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의 새로운 사례들로 발굴해 나가면서 문학과 저널리즘 장의 오랜 지배적 인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을 한층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4·16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파주 : 창비, 2015.
- 김예란 (외) (공저). 『눈먼 자들의 국가』. 파주 : 문학동네, 2014.
- 김 원. 『서발턴(Subaltern)의 재림 : 2000년대 르포에 나타난 99%의 현실』. 『실천문학』, 2012년 봄호, 192~206면, 2012.
- 김종엽 외 (공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서울 : 그린비, 2016.
- 김형중. 『문학과 증언 : 세월호 이후의 한국문학』. 『감성연구』, 제12집, 2016, 31~59면.
- 박숙자. 『기억과 재현으로서의 애도 : 『전태일 평전』』. 『국제어문』, 제67집, 2015, 41~69면.
- 박진우. “증언과 미디어 : 집합적 기억의 언술 형식에 대한 고찰”. 『언론과 사회』 18권 1호, 2010, 47~90면.
- _____. 『집합적 기억 연구 : 주제와 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편).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서울 : 컬처룩, 2015, 417~451면.
- 방송기자연합회.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 서울 : 방송기자연합회, 2014.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서울 : 풀빛, 1985.
- 정근식.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2013, 347~394면.
- 조영래. 『전태일 평전』, 개정판, 서울 : 돌베개, 1991.
-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서울 : 진실의힘, 2016.

- 천정환, 『세월, '노동', 오늘의 '사실'과 정동을 다룰 때 : 논픽션과 르포의 부흥에
부쳐』, 『세계의 문학』, 제40권 1호, 통권 155호, 2015년 봄, 184~200면.
- Agamben, G.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 문서고와 증인』. 정문영 옮김. 서울 : 새
물결, 2012.
- Dulong, R. *Le témoin oculaire : Les conditions sociales de l'attestation personnelle*.
Paris : Éd. de l'EHESS, 1998.
- Erl, A. "Travelling Memory". *Parallax*, 17(4), 2011, pp.4~18.
- Hartog, F. *Régimes d'historicité : Présentisme et expériences du temps*. Paris
: Seuil, 2002.
- Jay, M. "Of Plots, Witnesses and Judgements". in S. Friedlander, (ed.).
Probing the Limits of Representation : Nazism and the Final Solutio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p.97~107.
- Kitch, C. "Placing Journalism inside Memory - And Memory Studies".
Memory Studies, 1(3), 2008, pp.311~320.
- Kovach, B. & Rosenstiel, T.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3판. 이재경 옮김.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 Levi, P.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옮김. 서울 : 돌베개, 2007.
- _____.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가 인생
최후에 남긴 유서』. 이소영 옮김. 서울 : 돌베개, 2014.
- Lyotard, J.-F. *Le différend*. Paris : Minuit, 1983.
- Meyers, O., Zandberg, E., and Neiger, M. "Prime Time Commemoration : An
Analysis of Television Broadcasts on Israeli's Memorial Day for the
Holocaust and the Heroism". *Journal of Communication*, 59, 2009,
pp.456~80.
- Olick, J. "Collective Memory : The Two Culture". *Sociological Theory*, 17(3),
1999, pp.333~348.
- _____. 『기억의 지도 : 집단기억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뒤바꿔놓았나?』. 강경이 옮김. 서울 : 옥당, 2011.
- Peters, J. D. "Witnessing". *Media, Culture & Society*, 23(6), 2001, pp.707~
723.
- Schudson, M. 『뉴스의 사회학』, 2판. 이강형 옮김.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 Teneboim-Weinblatt, K. "Bridging Collective Memories and Public Agendas : Toward a Theory of Mediated Prospective Memory". *Communication Theory*, 23(2), 2013, pp.91~111.
- Traverso, E. *Le passé, modes d'emploi : Histoire, mémoire, politique*. Paris : La Fabrique, 2005.
- _____. *Mélancolie de gauche : La force d'une tradition cachée, XIXe ~ XXIe siècle*. Paris : La Découverte, 2017.
- White, H.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 메타역사』. 천형균 옮김. 서울 : 문학 과지성사, 1991.
- Zandberg, E. "The right to tell the (right) story : journalism, authority and memory". *Media, Culture & Society*, 32(1), 2010, pp.5~24.
- Zelizer, B. *Covering the Body : The Kennedy Assassination, the Media, and the Shaping of Collective Memor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_____. "Reading the past against the grain : the shape of memory stud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2(2), 1995, pp.214 ~239.
- _____. "Memory as Foreground, Journalism as Background". in B. Zelizer & K. Tenenboim-Weinblatt. (eds.). *Journalism and Memory*. New York : Palgrave, 2014, pp.32~49.

Abstract

Memory, Testimony and Journalism : for New Recognition

Park, Jin-woo*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memory and testimony in terms of journalism.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writing of various memories and testimonies that are uncommon in our day is also a very important area of journalism. Thus,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genreological considerations raised recently in the field of literature, 'nonfiction and literature', and argues that it can be a very good area of journalism. However, this is a subject that should be examined in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such as history and memory, memory and testimony literature, and journalism and memory. In this respect, this study firstly considers the reason why journalism has been neglected in the study of memory and testimony in the context of the theoretical history, and second, in the era of digital journalism, we examine the need for a new format of writing - more opinion-oriented, subjective and advocacy writing - required for self-innovation of journalism.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memory and testimony literature need to be actively interpreted as the area of journalism writing, in which memories and testimonies are very important in the changes of historical awareness of memorization and testimony, and in the changes of digital and mobile journalism eco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raises the necessity of reinterpreting works such as Cho Yeong Rae's *Life of Jeon Tae Il*, and Hwang Seok-Young's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Times* as a very import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Korean journalism.

* Konkuk University

Key Words : Collective Memory and Journalism, Testimony, Testimony Literature

<필자 소개>

이름 : 박진우

소속 :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전자우편 : jinwoo421@gmail.com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22일